

II.

## 보다 나은 아키텍처를 위한 테스트 구현

강사 룡

첫 소개에서 언급했듯 새로운 아키텍처 적용 혹은 기존 아키텍처의 변경 과정은 상당한 양의 회귀 오류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일일이 사람이 검증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설계 변경은 반드시 잘 작성된 자동화 테스트 구조 안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잘 설계된 코드는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이기도 합니다. 본격적으로 아키텍처 구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화 테스트 구현을 배워봅시다.

*The Red.*

## TABLE OF CONTENT.



좋은 아키텍처를 위한  
올바른 테스트.



# 왜 아키텍처에서 테스트가 중요한가

## 현실적인 필요성

- "QA doesn't scale"
- QA가 보다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

---

## 좋은 설계를 촉진

- single responsibility
- test case를 통해서 API를 변경했을 때의 사용성의 차이를 즉시 알 수 있다

---

## 코딩 생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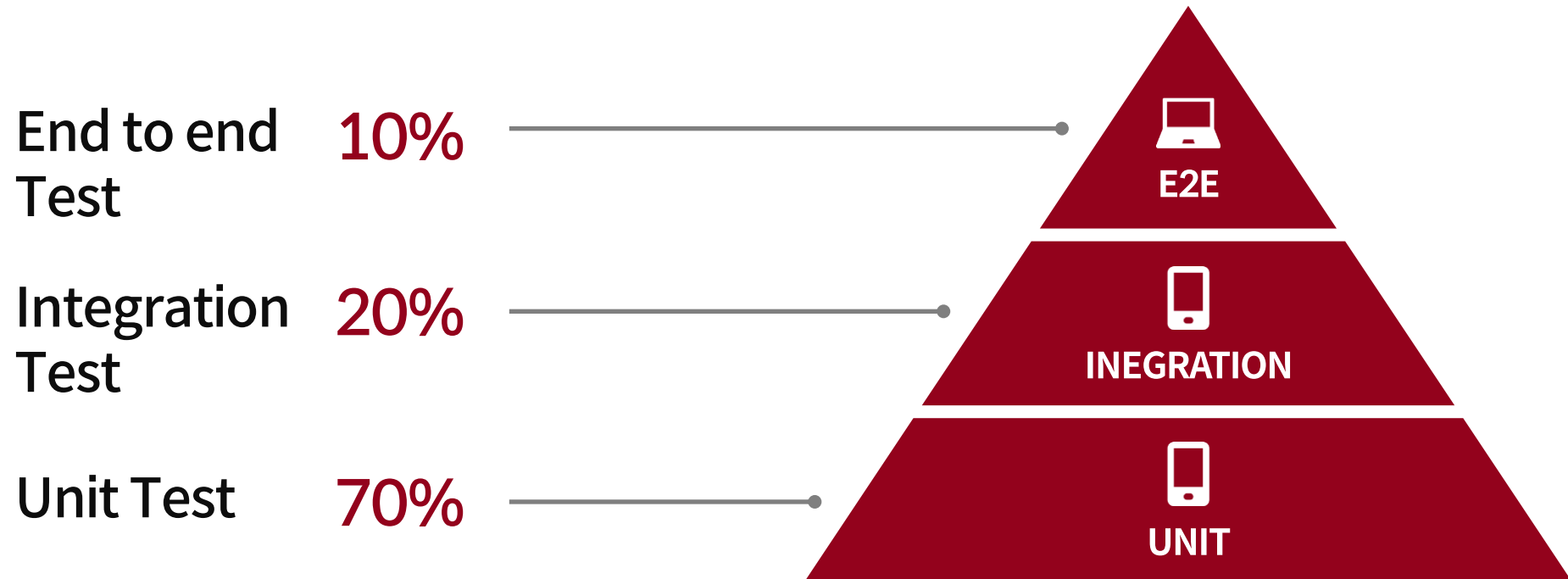
- 확신을 갖고 작업할 수 있음: "테스트가 fail 되지 않은 한 내가 수정한 코드가 잘 움직이고 있다" 심리적 안정성이 코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 줌
- 실제로 테스트 구현을 함께 하는 쪽이 개발 시간이 짧음

# 왜 아키텍처에서 테스트가 중요한가

## 협업을 촉진

- 문서로서의 테스트 코드: 테스트 케이스만 보면 특정 API의 기능과 의도, 올바른 사용버을 단번에 파악 가능
- 코드 담당자(owner)가 아니더라도 코드를 수정할 수 있음 (원저작자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구현했다면 테스트도 실패)
- 더 효율적인 code review

## 테스트 범위의 구분: 테스트팅 피라미드



# Android 테스트의 종류: 로컬 테스트(Local Test)

## 로컬 테스트 (test 폴더)

- JVM 위에서 동작
- JUnit 라이브러리 사용

---

## 로컬 테스트 with androidx.test

- 내부적으로 Robolectri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JVM 테스트
  - 에뮬레이션 된 Context, Application, Activity 등을 제공
- 보통은 상당수 unit test가 여기서 구현됨
- Big local test: integration test도 여기서 구현될 수 있음



# Android 테스트의 종류: Instrumented Test

Instrumented  
test  
(androidTest 폴더)

- 시뮬레이터 혹은 실제 장치에서 동작
- Espresso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
- Small instrumented test: 단위가 여기에 구현될 수도 있음

---

When to use  
real device  
for testing

- **DO** - 안정성 / 호환성 테스트, 성능 테스트
- **DON'T** - 단위 테스트: 할 수 있는 한 JVM에서 실행해야 함. 그리고 되지 않는 것은 시뮬레이터에서. 실 기기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것





# 무엇을 테스트 해야 하나?

대원칙: 테스트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에러를 예방하기 위한 것

→ 의미 있는 테스트가 되어야 함

좋은 예: Edge cases

- Boundary condition
- 모든 가능한 네트워크 에러
- 잘못된 데이터 (예: 포맷이 틀린 json 문자열)
- 저장소 오버플로
- 중요 객체가 재생성 되는 상황 (흔한 예: configuration change)

## Baby steps

### : 테스트 코드 구현에 익숙하지 않다면? (1단계)

#### 작은, 독립적인 부분부터 시작

- 독립 함수에 대한 JVM 단위 테스트
- 예: 계산/변환 로직을 가진 클래스
- 참고 서적: 테스트 주도 개발(TDD by Example)

#### 큰 부분부터 시작

- 핵심 시나리오(Critical User Journey)에 대한 E2E test
- 주의: 변경이 많지 않거나, 변경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서비스에 중요한 곳들에 한정 → 그러지 않으면 깨지기 쉬운(brittle) 테스트를 양산하게 됨

# Baby steps

## : 테스트 코드 구현에 익숙하지 않다면? (2단계)

실제/의사 디버깅 과정에서 테스트 코드를 적용



# 외부 의존성은 어떻게 해결하나?

예: SQLite, REST/gRPC call

Real code > Fake >> Mock/Spy/Stub

- 1순위: 의존성 관계에 있는 진짜 코드를 사용 - 예: in-memory DB
- 2순위: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표준 fake를 사용
- 3순위: 위의 방법이 불가할 때, mock 사용

“Prefer realism over isolation”

Hilt! - [d.android.com/training/dependency-injection/hilt-testing](https://d.android.com/training/dependency-injection/hilt-testing)

## 그외 테스트 작성 팁

- ✓ type-safe한 matcher를 적극 활용할 것 : hamcrest, truth 등 + built-in matcher
- ✓ interaction보다 state를 체크할 것 (다음 강의 참조)
- ✓ 필요시 shared code를 적절히 사용할 것 (다음 강의 참조)
- ✓ Android API를 mocking하지 말 것: 특히 Context
- ✓ Robolectric! via androidx.test  
Fragment 독립 생성, Life Cycle 제어 등 많은 개선이 있었음



# Google은 어떻게 테스트하는가.



# Google Scal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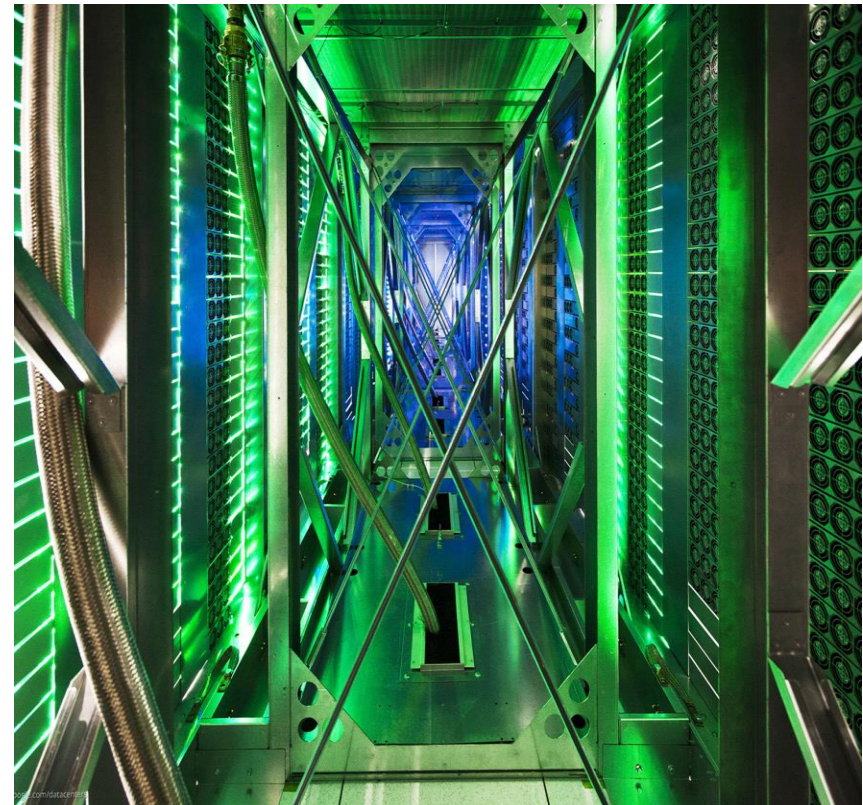
**30,000+** engineers

**60,000** changes per day

**2 billion** lines of code

**9 million** source files

**500 million** test cases per day



# 실패 사례: Google Web Server in 2005

## 거의 테스트 코드가 없었음

- 특정 시점에서는 무려 80% 이상의 PR이 버그로 인해 롤백되었음
- 개발자들이 기능을 수정할 때 잘 동작하리라는 확신이 없어짐

## 이 문제를 분석한 결과, 자동화 테스트만이 해결책이라는 결론

- 코드 변경시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함께 구현하도록 정책 변경
- 1년 뒤 → 긴급 패치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
- 현재 GWS 단일 시스템에서만 수만 개의 테스트 케이스



# Google에서 장애가 발생하면?

1. Issue Tracker에 버그 보고
2. 해당 Pull Request를 통째로 roll back
3. **보고된 버그를 재현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 작성**  
(물론 테스트 케이스는 fail)
4. 테스트 코드를 pass 할 수 있는 코드 작성
5. Pull Request 신청 (이하는 통상 PR 처리 수순)
  - a. 자동 검사 (test coverage 미달, 코드 스타일, 잠재적 취약성 등), 테스트 실행
  - b. Code Review
  - c. Merge

# Google의 테스트 정책

높은 Test Coverage\*

→ \*여기서 테스트 커버리지는 오직 small-sized test로만 측정함

Beyoncé Rule

→ “If you liked it, then you should put a test on it.”

## 좋은 테스트의 조건

정확성  
(Correctnes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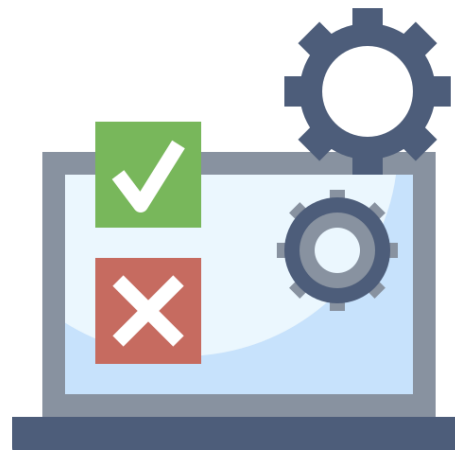
검증 대상의 행위(behavior)가 실제 앱에서 동작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일치

명확성  
(Clarity)

테스트 케이스는 코드의 사용법을 설명하듯이 구현되어야 한다  
→ 간결성(Conciseness)과 완결성Completeness 보장

연관되지 않은  
변경사항들에 대한  
안정성  
(Resilienc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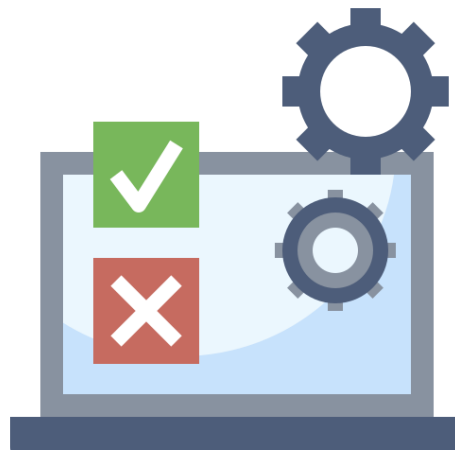
목적 혹은 행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, 테스트도 변경하지 않아야 함.



## 좋은 테스트의 조건

### 유용성 (Helpfulness)

- 실제의 동작이 테스트에 반영
-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한다면, 그것은 반드시 앱도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함  
(mock의 오류, 설정 오류, 등등이 아니라)



## 외부 의존성 처리의 원칙

1. 의존성은 할 수 있는 한 실제 코드를 사용해서 테스트
2. network등 실행 속도가 느린 API의 경우, 해당 모듈을 제공하는 개발팀에서 표준 fake 구현도 제공
3. 위 방법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mock으로 테스트

```
@DoNotMock("Use SimpleQuery.create() instead of mocking.")  
  
abstract class Query {  
  
    abstract fun getQueryValue(): String  
  
}
```

## More complicated test

### Functional test with..

- UI action
- Network faking - hermetic test, less flaky
- Network request validation -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검증
- UI 변경에도 테스트가 수정될 필요 없도록 구성.  
Network, multimedia playback 등에 대한 fake sync도 구현

---

### E2E test tool based on script

- Eg. Firebase Test Lab
- 핵심 사용자 시나리오 (Critical User Journey)를 high-level 차원에서 테스트함 - 주로 PM이 작성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

---

### Snapshot Test

깨지기 쉬운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, 목적 설정이 아주 중요

## 테스팅 안티패턴

- ✓ 느린 테스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내용이 담긴 큰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
- ✓ View를 위한 테스트를 구현하지 않는다
  - 향후 성능 개선 등 다양한 이유로 리팩토링이 필요한데, 테스트가 없으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김
- ✓ 앱의 크래시를 막기 위해 테스트 추가보다는 그냥 catch로 삼키는 편을 택한다

# Testing Code Best Practices.





# 대원칙 #1: 테스트 불변성(Unchanging Test)

왜 테스트 코드는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가?

→ 깨지기 쉬운 테스트(brittle test) 때문

테스트 코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:

- 순수한 리팩토링
- 새로운 feature 추가
- 버그 수정

유일한 예외: 행위의 변경 (behavior changes)

# Best Practice #1 Test via Public APIs

테스트 코드는 대상 API의 사용자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다

→ 즉, 반드시 public 메소드만 호출해야 한다

테스트 코드에서 불러지기 위한 목적만으로  
private/protected 메소드를 public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

→ 원 소스의 의도를 깨뜨리게 되므로

## Best Practice #1 Test via Public APIs

```
fun processTransaction(transaction: Transaction) {  
    if (isValid(transaction)) {  
        saveToDatabase(transaction)  
    }  
}
```

```
private fun isValid(t: Transaction): Boolean =  
    return t.amount < t.sender.balance
```

```
private fun saveToDatabase(t: Transaction) {  
    val s = "${t.sender}, ${t.recipient()}, ${t.amount()}"  
    database.put(t.getId(), s)  
}
```

## Best Practice #1 Test via Public APIs

```
fun processTransaction(transaction: Transaction) {  
    if (isValid(transaction)) {  
        saveToDatabase(transaction)  
    }  
}
```

```
private fun isValid(t: Transaction): Boolean =  
    return t.amount < t.sender.balance
```

```
private fun saveToDatabase(t: Transaction) {  
    val s = "${t.sender}, ${t.recipient()}, ${t.amount()}"  
    database.put(t.getId(), s)  
}
```

# BAD

```
@Test
fun emptyAccountShouldNotBeValid() {
    assertThat(processor.isValid(newTransaction().setSender(EMPTY_ACCOUNT)))
        .assertFalse()
}

@Test
fun shouldSaveSerializedData() {
    processor.saveToDatabase(newTransaction()
        .setId(123)
        .setSender("me")
        .setRecipient("you")
        .setAmount(100))
    assertThat(database.get(123)).isEqualTo("me,you,100")
}
```

# GOOD

```
@Test
fun shouldTransferFunds() {
    processor.setAccountBalance("me", 150)
    processor.setAccountBalance("you", 20)

    processor.processTransaction(newTransaction()
        .setSender("me")
        .setRecipient("you")
        .setAmount(100))

    assertThat(processor.getAccountBalance("me")).isEqualTo(50)
    assertThat(processor.getAccountBalance("you")).isEqualTo(120)
}
```

# GOOD

```
@Test
fun shouldNotPerformInvalidTransactions() {
    processor.setAccountBalance("me", 50)
    processor.setAccountBalance("you", 20)

    processor.processTransaction(newTransaction()
        .setSender("me")
        .setRecipient("you")
        .setAmount(100))

    assertThat(processor.getAccountBalance("me")).isEqualTo(50)
    assertThat(processor.getAccountBalance("you")).isEqualTo(20)
}
```

## Best Practice #2

# Test State, Not Interactions

테스트의 결과는, 또 다른 조작을 통해서  
통과(pass)/실패(fail)가 검증되어서는 안 된다

// Bad

```
@Test
fun shouldWriteToDatabase() {
    accounts.createUser("foobar")
    verify(database).put("foobar")
}
```



# GOOD

```
@Test  
fun shouldCreateUsers() {  
    accounts.createUser("foobar")  
    assertThat(accounts.getUser("foobar")).isNotNull()  
}
```

## Best Practice #3

# Make Your Tests Complete and Concise

테스트 코드는,

- ✓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 
→ 완결성: *completeness*
- ✓ 반대로 불필요한 내용은 감춰야 한다 → 간결성: *conciseness*
- ✓ 더 자세한 설명: <https://testing.googleblog.com/2014/03/testing-on-toilet-what-makes-good-test.html>

# BAD

```
@Test
fun shouldPerformAddition() {
    val calculator = Calculator(RoundingStrategy(),
        "unused", ENABLE_COSINE_FEATURE, 0.01, calculusEngine, false)

    val result = calculator.calculate(newTestCalculation())
    assertThat(result).isEqualTo(5) // Where did this number come from?
}
```

# GOOD

```
@Test
fun shouldPerformAddition() {
    val calculator = newCalculator()
    val result = calculator.calculate(newCalculation(2, Operation.PLUS, 3))
    assertThat(result).isEqualTo(5)
}
```

## Best Practice #4

# Test Behaviors, Not Methods

보통 메소드와 테스트 케이스는 1:N

커버리지에만 신경을 쓸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음

흔히 보이는 안티 패턴

- 1:1 -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에, 한 개의 메소드의 여러 가지의 검증 조건을 한 번에 넣는다
- M:1 - 특정 기능 검증을 위해 여러 메소드를 한 번에 검증한다 (항상 나쁜 것은 아님)

## Code to be tested

```
fun displayTransactionResults(user: User, transaction: Transaction) {  
    ui.showMessage("You bought a " + transaction.itemName)  
    if (user.balance < LOW_BALANCE_THRESHOLD) {  
        ui.showMessage("Warning: your balance is low!")  
    }  
}
```

## Bad: test methods

```
@Test
fun testDisplayTransactionResults() {
    transactionProcessor.displayTransactionResults(
        newUserWithBalance(
            LOW_BALANCE_THRESHOLD.plus(dollars(2))),
        Transaction("Some Item", dollars(3)))

    assertThat(ui.getText()).contains("You bought a Some Item")
    assertThat(ui.getText()).contains("your balance is low")
}
```

## Good: test behaviors

```
@Test
fun displayTransactionResults_showsItemName() {
    transactionProcessor.displayTransactionResults(
        User(), Transaction("Some Item"))
    assertThat(ui.getText()).contains("You bought a Some Item")
}
```

```
@Test
fun displayTransactionResults_showsLowBalanceWarning() {
    transactionProcessor.displayTransactionResults(
        newUserWithBalance(
            LOW_BALANCE_THRESHOLD.plus(dollars(2))),
        Transaction("Some Item", dollars(3)))
    assertThat(ui.getText()).contains("your balance is low")
}
```



## Best Practice #5

# Structure tests to emphasize behaviors

테스트 케이스의 3요소가 명확히 분리되는 것이 좋음



# Good

```
@Test
fun transferFundsShouldMoveMoneyBetweenAccounts() {
    // Given two accounts with initial balances of $150 and $20
    val account1 = newAccountWithBalance(usd(150))
    val account2 = newAccountWithBalance(usd(20))

    // When transferring $100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account
    bank.transferFunds(account1, account2, usd(100))

    // Then the new account balances should reflect the transfer
    assertThat(account1.getBalance()).isEqualTo(usd(50))
    assertThat(account2.getBalance()).isEqualTo(usd(120))
}
```

## Another good example

```
@Test
fun shouldTimeOutConnections() {
    // Given two users
    val user1 = newUser()
    val user2 = newUser()
    // And an empty connection pool with a 10-minute timeout
    val pool = newPool(Duration.minutes(10))
    // When connecting both users to the pool
    pool.connect(user1)
    pool.connect(user2)
    // Then the pool should have two connections
    assertThat(pool.getConnections()).hasSize(2)
    // When waiting for 20 minutes
    clock.advance(Duration.minutes(20))
    // Then the pool should have no connections
    assertThat(pool.getConnections()).isEmpty()
    // And each user should be disconnected
    assertThat(user1.isConnected()).isFalse()
    assertThat(user2.isConnected()).isFalse()
}
```

## Best Practice #6

# Don't Put Logic in Tests

테스트 코드가 대상이 되는 코드와  
동일한 로직을 공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

대상 코드와 다른 로직을 쓰는 게 아니라  
할 수 있는 한 로직을 제거해야 한다



# Bad

```
@Test
fun shouldNavigateToAlbumsPage() {
    val baseUrl = "http://photos.google.com/"
    val nav = Navigator(baseUrl)
    nav.goToAlbumPage()
    assertThat(nav.getCurrentUrl()).isEqualTo(baseUrl + "/albums")
}
```

# Good

```
@Test
fun shouldNavigateToPhotosPage() {
    val nav = Navigator("http://photos.google.com/");
    nav.goToPhotosPage()
    assertThat(nav.getCurrentUrl())
        .isEqualTo("http://photos.google.com//albums") // Oops!
}
```

## Best Practice #7 DAMP, Not DRY

DRY (Don't Repeat Yourself)

→ 같은 코드를 반복하지 말라 → 가장 일반적인 조언

DAMP (Descriptive And Meaningful Phrases)

→ 반복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서 재사용한 결과가,  
오히려 지금까지 언급한 원칙을 해쳐서는 안 된다

# Bad

```
@Test
fun shouldAllowMultipleUsers() {
    val users = createUsers(false, false)
    val forum = createForumAndRegisterUsers(users)
    validateForumAndUsers(forum, users)
}
@Test
public void shouldNotAllowBannedUsers() {
    val users = createUsers(true)
    val forum = createForumAndRegisterUsers(users)
    validateForumAndUsers(forum, users)
}

// Lots more tests...

private fun createUsers(boolean... banned): List<User> {
    // ...
}
// ...
```



# Good

```
@Test
fun shouldAllowMultipleUsers() {
    val user1 = newUser().setState(State.NORMAL).build()
    val user2 = newUser().setState(State.NORMAL).build()

    val forum = Forum()
    forum.register(user1)
    forum.register(user2)

    assertThat(forum.hasRegisteredUser(user1)).isTrue()
    assertThat(forum.hasRegisteredUser(user2)).isTrue()
}
```

# Good

```
@Test
fun shouldNotRegisterBannedUsers() {
    val user = newUser().setState(State.BANNED).build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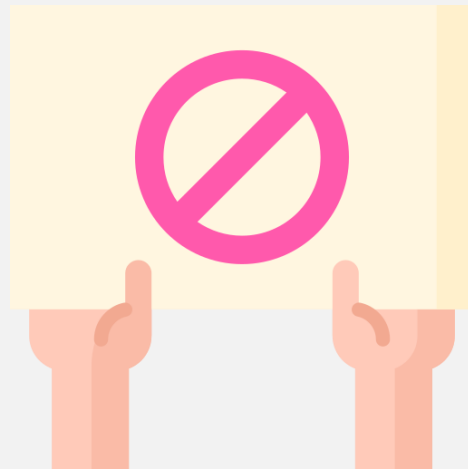
    val forum = Forum()
    try {
        forum.register(user)
    } catch (ignored: BannedUserException) {}

    assertThat(forum.hasRegisteredUser(user)).isFalse()
}
```

## Best Practice #8 No Shared Value

테스트 케이스 간의 상태를 공유하면 안 됨

객체내 필드 수준에서의 불변성(immutability)을 제공하지 않은  
Kotlin / Java에서 특히 위험



# Bad

```
private val ACCOUNT_1 = Account.newBuilder()
    .setState(AccountState.OPEN).setBalance(50).build()
private val ACCOUNT_2 = Account.newBuilder()
    .setState(AccountState.CLOSED).setBalance(0).build()
private val ITEM = Item.newBuilder()
    .setName("Cheeseburger").setPrice(100).build()
```

## Hundreds of lines of other tests...

```
@Test
fun canBuyItem_returnsFalseForClosedAccounts() {
    assertThat(store.canBuyItem(ITEM, ACCOUNT_1)).isFalse()
}
```

# Good

```
private fun newContact(): Contact.Builder =  
    Contact.newBuilder()  
        .setFirstName("Grace")  
        .setLastName("Hopper")  
        .setPhoneNumber("555-123-4567")  
  
@Test  
fun fullNameShouldCombineFirstAndLastNames() {  
    val contact = newContact()  
        .setFirstName("Ada")  
        .setLastName("Lovelace")  
        .build()  
    assertThat(contact.getFullName()).isEqualTo("Ada Lovelace")  
}
```

## Best Practice #9 Shared Setup

값이 아닌, 설정을 공유하라

예를 들어 초기 상태 설정을 위한 헬퍼들을 만드는 것은 적극 권장됨



# Bad

```
private lateinit var nameService: NameService
private lateinit var userStore: UserStore

@Before
fun setUp() {
    nameService = NameService()
    nameService.set("user1", "Donald Knuth")
    userStore = UserStore(nameService)
}
```

## Hundreds of lines of other tests...

```
@Test
fun shouldReturnNameFromService() {
    val user = userStore.get("user1")
    assertThat(user.getName()).isEqualTo("Donald Knuth")
}
```

# Good

```
private lateinit nameService: NameService
private lateinit userStore: UserStore

@Before
fun setUp() {
    nameService = NameService()
    nameService.set("user1", "Donald Knuth")
    userStore = UserStore(nameService)
}

@Test
fun shouldReturnNameFromService() {
    nameService.set("user1", "Margaret Hamilton")
    val user = userStore.get("user1")

    assertThat(user.getName()).isEqualTo("Margaret Hamilton")
}
```



## Good example of helper method

```
fun assertUserHasAccessToAccount(user: User, account: Account) {  
    for (long userId : account.getUsersWithAccess()) {  
        if (user.id == userId) {  
            return  
        }  
    }  
    fail("${user.name} cannot access ${account.name}")  
}
```

# References

Android에서  
앱 테스트

[d.android.com/training/testing](https://d.android.com/training/testing)

---

Google 코드랩:  
Testing Basics

[d.android.com/codelabs/advanced-android-kotlin-training-testing-basics](https://d.android.com/codelabs/advanced-android-kotlin-training-testing-basics)

---

Google Testing Blog

<https://testing.googleblog.com/>

---

TotT  
(Testing on the Toilet)

<https://testing.googleblog.com/search/label/TotT>

수고하셨습니다!

